

국힘, 구인난 끝 '황우여 비대위'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19대 의원...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교육부 장관 6월까지 관리형 비대위...당 쇄신보다 전당대회 준비 작업 집중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이후 '구인난'을 겪어왔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당 대표 출신의 원로인 황우여(77·사진) 당 상임고문을 29일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틀날 사퇴한 뒤 18일 만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비대위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당선인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권한대행은 그동안 두달가량 임기의 '관리형' 비대위위원장 후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비대위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6월 열린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이 새롭게 출범하는 비대위의 자체적인 혁신이나 쇄신책 논의보다는 안정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고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윤 권한대행은 당선인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황 고문에 대해 "5선 의원, 당 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사람, 당과 정치를 잘 아는 사람, 당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황 고문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황 고문이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인선안 발표 직전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실과도 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 고문의 비대위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위 소집을 위한 상임전국위는 이날 열렸다. 이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5월 3일 이전에 비대위위원장 임명 절차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임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로 대표 선출 방식이 꼽힌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기존 전당대회 규정을 수정하려 한다면 친윤계와 영남권 의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혁신을 요구하는 수도권 의원과 원외 조직위원장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황우여 비대위는 안정적인 당권 교체 작업을 위해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이들 그룹 사이를 중재해 물을 확정해야 한다



는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우여 상임고문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빨리, 조속한 기한 내에 당 대표를 성공적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

다.

황 비대위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 당이 어렵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당후사, 선민주당의 정신으로 당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비대위위원장 지명 뒤 첫 공개 입장 표명이다.

황 내정자는 또 "지금 여야가 어느 때보다도 서로 협력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도 대화하겠다"며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민생 문제이니 당의 입장을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경선 물과 관련해선 "그전에도 우리가 몇 번 틀에 손을 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광장히 예민했다"며 "기존 틀을 전제로 하되 수정·보완할 게 있으면 널리 의견을 듣고 나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에서 황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6월 개최될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홍익표 "국힘 5월 임시회 반대 명분 없어"

"국회법 따른 의무... 본회의 협상 지연 목적 안돼" 일정 합의 압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 개최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며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태다. 이 기간에 본회의를 두 차례(5월 2일, 28일) 열어 채상병사건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과 밀린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폭거라는 등 비난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 일정에 대해 자주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못 박혀 있다. 국회법을 좀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선의 아침저녁' 인터뷰에서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며 "의사일정을 확실히 결정하겠다.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과尹 거부 법안 재발의 인식 공유"

조국 대표 라디오 출연... "한동훈 특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적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의 회동 내용을) 세밀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는 자신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간적 순서는 맞지 않게 됐지만 이 대표가 앞으로 다른 야권 대표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자는 주장과 관련해선 "원래 10석이었던 기준이 박정희 대통령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 20석으로 올랐다. 유신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먼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상태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공학적으로"라며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일 뿐, 체급이 헤비급이면 페더급이든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로톡법' 처리 촉구

법률 플랫폼 부당 규제 해소... 민주당 이어 국힘도 법안 발의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은 29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유니콘팜은 입장문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법률 시장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시대에 3만 4000 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과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은 수년간 갈등을 겪어왔다.

로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자 변협이 2021년 5월에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하며 양

측의 충돌이 이어졌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사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도 지난 25일 변협이 임의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